

2003년 출판계는 출판산업발전을 위한 행보가 어느 때보다 빨랐다. 출판계 공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가 하면,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대되는 굵직한 성과도 얻었다. 눈에 띄는 출판마케팅의 시도와 국민들의 독서열기는 출판계에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었다. 2003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출판계 10대 뉴스를 선정, 소개한다.

1. 한국,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확정
주빈국 조직위원장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강숙 씨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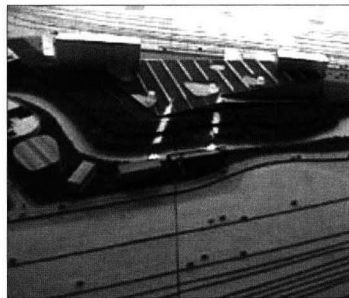
한국이 세계 최대 도서축제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확정되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각국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저작권을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장인 한편, 주빈국의 문화와 예술이 소개되는 축제의 자리다. 주빈국 행사계획 구상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한국을 방문한 독일 조직위원장 폴커 노이만 씨는 “독일만이 아닌 유럽 전체가 기다려 온 일이다. 한국의 출판과 문화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도록 3,000여 평의 전시장소를 마련하겠다”며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드러냈다. 한편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강숙 씨가 추대됐다.

계획을 발표,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주요내용은 △산업기반 구축 △정책효율성 제고 △지식인프라의 정보화·현대화 등으로 5년간 6,500여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3. 윤곽 드러낸 파주북시티

창비, 한길사 등 출판사 속속 입주, 다양한 문화행사로 파주북시티 알리기 나서



세계적 테마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파주북시티가 윤곽을 속속 드러냈다. 창비와 한길사가 사옥을 지어 옮겨간 것을 시작으로, 민음사

·열화당·효형출판·문학동네 등 굵직한 단행본 출판사가 2004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 어린이 책 한마당’, ‘북스타트 운동 국제 심포지엄’ 등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파주시와 책을 연계, 파주북시티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

파주북시티 건설을 책임 지휘해 온 열화당 이기웅 대표는 “공공도서관을 짓고 국제도서전을 유치해 명실공히 책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문화·생태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2.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 발표

2003년 2월 27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시작됐다. 출판산업 발전과 중소서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도서정가제는 발행된 지 1년이 안 된 책은 인터넷서점에서도 10%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에는 실용서가, 2007년에는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에서 완전 제외되고, 2008년에는 도서정가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법 형태.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21일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

4.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룰 정해져

지난 7월 1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중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법은 1995년 이후 8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 없이 허용한 데 대한 부작용과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간 저작물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신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 과장은 "디지털·네트워크화로 인해 과거에 계임을 하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번 개정은 계임의 물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명백하게 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5. 출판유통진흥원 설립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한 공공 성격의 중장기정보화계획 수립해

출판유통진흥원이 첫 발을 내딛었다. 출판유통진흥원은 열악한 유통구조와 영세성으로 타 산업에 비해 낙후된 출판유통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출판사 유통사 서점과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한 공공 성격의 사업을 펼칠 계획. 4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에 최태경 두산동아 대표, 부회장은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홍승대 한국출판유통 대표, 이강인 에스24 대표를 선출했다.

출판유통진흥원은 3개년 계획 아래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6. 도서전에도 부는 출판 한류열풍

국제도서전에서 여느 해보다 우수한 성과 거둬



2003년 국제도서전에서 한국 부스관을 찾은 외국인의 발걸음이 여느 해보다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타이베이, 북경도서전에서의 한국 출판물에 대한 열풍이 뜨거웠다. 지난 9월 참가한 북경국제도서전에서는 181건의 계약이 성사됐는데, 지난해보다 계약 건

수는 14건이 증가한 것이지만 계약액으로 볼 때는 무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출판물을 주목하고 돌아갔다는 사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계약액을 올렸다. 이 같은 출판한류열풍은 당분간 그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

7. 북스타트, 기적의 도서관 등 대중적 독서운동 확산

다양한 콘텐츠 갖춘 눈에 띄는 독서운동 늘어나



북스타트 운동을 비롯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등 대중적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올 한 해 시작된 독서운동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책을 읽자는 캠페인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콘텐츠 아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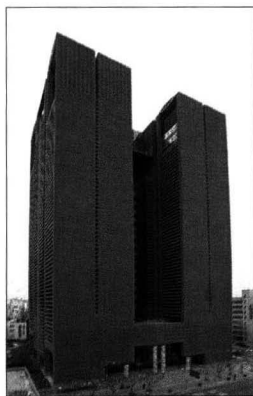
상과 지역을 특화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미취학 아동에게 가방에 책을 담아 전해주는 북스타트 운동, 황선미 씨 동화《마당을 나온 암탉》을 선정, 서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민간 후원금으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설립하는 기
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독서운동에도 트렌드가 있다
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8. 온라인서점 인수 합병,

메이저급 서점 강세에 중소서점 침체 가속화

중심상권 장악한 대형서점에 중소서점 설 곳 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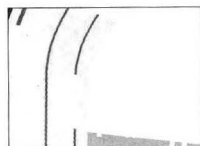


국내최대 규모를 갖춘 교보문고 강남
점이 지난 5월 3일 개장했다. 총 면적
3,600평을 자랑하는 교보문고 강남점
은 북마스터의 도서 상담, 첨단도서
검색대 등 특화된 서비스로 독자들을
불러 모았다. 교보문고 강남점에 앞서
리브로 역시 2월과 4월 수원과 부산에

각기 대형매장을 개장했다. 대형서점들이 새로운 문화공간의 역
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반면, 지식유통을 독점하려는 대형서점들
의 경쟁 속에 중소서점의 분위기는 심각한 편. 특히 대형서점 인
근에 자리한 중소서점들은 “반사이익 기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의견과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크고 작은 서점들이 조화롭
게 공존케 하는 정책 배려가 아쉽다”고 불만이 쌓인 상태.

9. 출판마케팅, 지하철 시대 개막하다

지하철 내 온오프라인으로 책 광고 볼 수 있어



신문과 잡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책 광고와
신간안내 정보를 지하철 안에서도 볼 수 있

게 되었다. 출판마케팅의 지하철 시대가 개막된 것. 지하철 역내
'문화정보 캘린더' 를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북이 지난 2월 지하철
마케팅의 막을 열었고, 이어 신간 릴리스 업체 여산통신이 지난
10월 'On book·TV' 로 지하철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나
이스북이 '문화정보 캘린더' 속에 책 광고를 소개하고 있다면,
여산통신은 직접 제작한 신간안내, 저자인터뷰, 전문가 독서일기
등을 지하철 방송을 통해 하루 5번 내보낸다. 한편 지하철 출판마
케팅은 하루 300만 인구가 드나드는 지하철에서 책 읽기 문화로
까지 연결시켰다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10. 출판전문지 출판저널 복간

격주간에서 월간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21세기형 디자인으로



서평문화를 격상시키면서 책과 독자를
이어온 출판저널이 2003년 2월 327호
로 복간되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로 발행권을 이
관해 새롭게 출발한 출판저널은 기존 격
주간에서 월간으로 편집체제를 바꾸고

'책이 좋다 사람이 좋다' 는 슬로건을 내세워 책과 함께 출판 현장
의 사람들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다. 고급독자를 위한 전문서평지
의 성격을 견지하는 한편,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히 접근하기 위
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강한 《출판저널》은 기존 출판저널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